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유형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독서시간의 매개효과 및 미디어 과의존의 조절효과 분석

하여진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유형에 따른 하위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잠재집단별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와 독서시간의 매개효과, 미디어 과의존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유형은 학업위주 집단, 비학업위주 집단, 평균 집단, 전반적 고사용 집단의 네 집단이 존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시간을 통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시간을 통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일반집단과 달리 과의존 집단에서는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선용을 위한 미디어 활용 교육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미디어 사용유형, 독서시간,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왔다.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상승한 코로나 19의 영향력도 청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사

소년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0 국민여가활동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게임, 모바일컨텐츠 시청과 인터넷 검색이다.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사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해 가기 위해 초등학교의 미디어 활용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김아미, 2020).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낸 연구들에 의하면 미디어는 아동의 주의집중력을 낮추고, 공격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한다. 초등학교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수업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며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울과 충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honchaiya & Pruksananoda, 2008; Gwag & Lee, 2009; Hyde, O'Callaghan, Bor et al., 2012).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은 학생들의 독서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미디어사용이 부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아동교육에 미디어 교육콘텐츠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기도 한다(Couse & Chen, 2010). 김경민, 송지은 외(2021)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유형에 따라 언어 및 집행기능발달에 있어 차별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융복합적 미디어 이용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미디어경험을 사용시간만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김동일·이윤희·이주영 외, 2012).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주로 미디어사용 강도(사용시간, 빈도, 과몰입, 중독 등)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미디어사용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과정변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의 미디어 사용유형에 따른 하위잠재집단을 분류하였고, 미디어 사용양상에 따른 발달상의 차이를 학교적응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사용양상에 따른 학교적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나아가 미디어 과의존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지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초등학교생의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습활동, 학교규칙준수, 교사 및 교우 관계 차원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교적응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성파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학업동기,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과 교사 및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다루고 있다(이상직·전영구·정우연 외, 2016; 정선영, 2022; Woolley & Grogan-Kaylor, 2006). 청소년기 아동에게 학교는 사회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종범, 2009). 학교적응은 아동의 삶의 질과 발달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부적응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비롯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가져온다(박승희·이형초·이정윤, 2007).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생태체계학적관점(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아동 개인, 가족, 학교 수준에서의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아동 개인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 요인을 들 수 있고(유지희·한창근, 2017; 윤여진·정인경, 2014), 가족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부모학력, 한부모가정 여부, 부모양육태도(전병규·오주리, 2015; 조윤영, 2019)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수준 요인으로는 학업성취도, 전학경험, 또래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김재엽·장용언·민지아, 2011; 양은별·김태우·박은혜 외, 2015; 황종호·이향숙·유숙경 외, 2017).

오늘날 아동들에게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등장한 미디어는 부모와 또래만큼 강력한 환경 요인이다(Jordan, 2004).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물들은 미디어 사용시간의 증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박용한, 2014; 안수빈·강보람·이강이, 2017; 이귀옥, 2020; 이소은·김미나,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에서 조사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9년 잠재적 위험군 30.2%, 고위험군 3.8% → 2020년 잠재적위험군 30.8%, 고위험군 5.0% → 2021년 잠재적 위험군 31.3%, 고위험군 5.7%). 코로나 19이후 과의존군은 일반군보다 게임, 메신저 사용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일반군은 필수교육, 영화/TV/동영상과 학업/업무용 검색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란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인, 60대 이상은 조절실패(현재성)문제적 결과 순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아동 과위존위험군은 현재성(조절실패)문제적 결과 순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미디어 중독위험은 미디어 이용 양상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단이라기보다 게임 및 동영상 감상 등 여가로 활용될 때 높아진다(김환남·이선애·이은경 외, 2014; 박성복·황하성, 2014; 정진주·장혜인, 2021).

미디어 이용양상은 정보수집, 소통, 휴식, 미디어의 특정 기능 이용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최민재, 2013), 정보추구, 상호작용, 미디어기능이용, 업무, 일상적 소통, 시간적 동반자의 6개 차원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박신영, 2013).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미디어 사용동기를 살펴본 김종민과 최은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학년 아동들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사용을 많이 하나 SNS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경민, 송지은, 최정원(202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양상은 전반적인 고사용유형, 오락위주 고사용 유형, 학업외 저사용 유형, 전반적 저사용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 초등학생의 미디어사용, 독서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기 독서는 성인기 평생 독자로서의 자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교육부(2015)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 한 권 독서 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독서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책을 읽는 평생 독자로 이끌 것을 기대하였다. 독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함을 통해 학교적응을 증진할 수 있으며, 독서교육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용현, 2012; 이은미, 2021; 정호선·조미아, 2020).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1)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51.7권으로 전년 대비 18.1권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 19 발생 후 독서량의 감소는 학생이 성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텔레비전/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미디어환경은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책맹(aliteracy)또는 의사 문맹 현상

으로 보기도 한다(김혜정, 2019).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과 독서에 대한 실증 연구들의 결과들은 이들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김아란과 남민지, 최영은(202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고를 통해 아동들의 미디어 사용실태와 독서시간 및 독서태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아동일수록 읽기를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과 독서실태 및 자기조절 읽기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한 김태용과 박선주(2014)는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독서량, 독서시간, 자기조절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도와 2018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선영, 정명은, 임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독서시간이 13.9%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을 통해 각 시기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과 양육 실태 및 요구, 육아정책의 효과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패널조사자료의 모집단은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다. 표집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예비표본 가구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를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예비표본으로 2,562가구를 모집하였으며 이 중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아동/부모/가족/학교/육아지원서비스/지역사회/육아지원정책 특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12-13차년도(초5-초6) 자료 중 주요연구 변수인 미디어 사용유형과 학교적응 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1,20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외 결측인 변수는 EM-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통해 대체하였다.

2. 연구변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사용 유형별 하위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별 학교적응 정도에의 차이와 독서시간의 매개효과 및 미디어 과의존 여부에 따른 차별적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표 1> 주요변수

		변수설명
미디어 이용유형	학습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학습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 안 함 ~ 매일 사용함, 4점 리커르트 척도)
	정보검색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정보검색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 안 함 ~ 매일 사용함, 4점 리커르트 척도)
	게임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게임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 안 함 ~ 매일 사용함, 4점 리커르트 척도)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엔터테인먼트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 안 함 ~ 매일 사용함, 4점 리커르트 척도)
	SNS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SNS에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전혀 사용 안 함 ~ 매일 사용함, 4점 리커르트 척도)
매개변수	독서시간	주중 하루평균 책 읽기 시간 (단위: 시간)
학교적응	학습활동	학습활동에 관한 5문항의 평균(4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	학교규칙에 관한 5문항의 평균(4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교우관계에 관한 5문항의 평균(4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교사관계에 관한 6문항의 평균(4점 리커르트 척도) 문항예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미디어 과의존	일반	일반사용자(1) 잠재적 위험 사용자 및 고위험 사용자(0)

먼저 집단분류 변수는 미디어 사용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정보검색/게임/엔터테인먼트/SNS 각 영역에서의 사용 정도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매개변수는 주중 하루평균 독서시간을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적응²⁾은 학습활동/학교규칙/교우관계/교사관계 영역에서 조사된 문항들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다집단분석을 위해 미디어과의존 관련 변수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

2)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원척도의 교사영역에서 교사관계 영역의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신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로 대체하여 구성되었음.

단척도) 청소년 관찰사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의 합산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여, 일반사용자, 잠재적위험 사용자, 고위험 사용자로 분류하고³⁾ 일반사용자인 경우에 1, 잠재적 위험 사용자 및 고위험 사용자는 0으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⁴⁾ 미디어 이용유형과 미디어과의존 변수는 12차년도(초5시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변수인 독서시간과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은 13차년도(초6시점)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1,201)			
미디어 이용유형	학습	2.19	1.03	1.00	4.00
	정보검색	2.45	0.78	1.00	4.00
	게임	2.82	1.02	1.00	4.00
	엔터테인먼트	2.96	0.98	1.00	4.00
	SNS	2.49	1.14	1.00	4.00
매개변수	독서시간	0.62	0.43	0.00	3.29
학교적응	학습활동	3.03	0.46	1.00	4.00
	학교규칙	3.20	0.45	1.00	4.00
	교우관계	3.19	0.42	1.60	4.00
	교사관계	3.03	0.60	1.00	4.00
미디어 과의존	일반	0.53	0.50	0.00	1.00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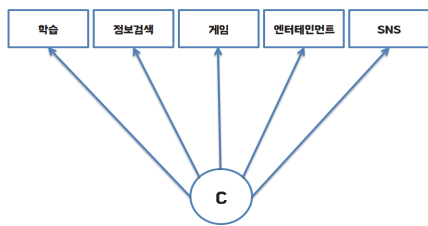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먼저,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양상에 따른 하위잠재집단 분류를 위해 잠재 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그림 1]참조).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확률적 군집분석방법인 혼합모형의 일종이며, 집단이 동일한 하나의 확률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관찰되지 않은 하위 집단별로 서로 다른 모수치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Muthen, 2004). 또한, 집단분류를 위한 정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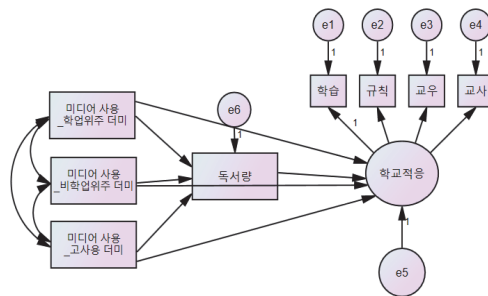
- 3) 일상생활장에 관련 5문항(예: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가상세계지향 관련 2문항(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금단 관련 4문항(예: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내성 관련 4문항(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에 대하여 4점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조사된 문항들의 총점이 39점 이하이고, 하위요인별 점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됨(신광우·김동일·정여주 외, 2011).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쳐 과의존군으로 명명하여 조사결과를 일반군과 비교하는 형식을 따름.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증결과와 같이 하위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적합도 지수의 해석은 정보지수(AIC, BIC, ABIC)가 작을수록 적합하다고 본다. 단,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지수들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단수를 증가시켜가며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둔화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분류의 질(Entropy)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본다. 모형비교 검증은 하위잠재집단의 수가 k-1개인 경우와 k개인 경우를 비교하여 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하위잠재집단의 수가 k-1개인 경우가 더 간명한 모형이기 때문에, k개로 하위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켰을 때도 모형의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집단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등 미디어의 각 영역에 사용하는 활용도에 따라 유의한 하위잠재집단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의 미디어사용양상이 독서시간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구조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을 1,000번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인 관계가 미디어 과의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은 요인구조 동일성모형, 요인부하량 동일성모형,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구조계수 동일성 모형, 구조 절편 동일성 모형, 구조 평균 동일성 모형,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구조잔차 동일성 모형,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으로 동일성 제약을 증가시켜 가며 카이제곱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Mplus 7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잠재프로파일분석



[그림 2] 구조회귀모형⁵⁾

5) 평균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학업위주 집단, 비학업위주 집단, 전반적 고사용집단을 더미변수화하여 모형에 투입하였음.

Ⅲ. 연구결과

1.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 양상에 따른 하위집단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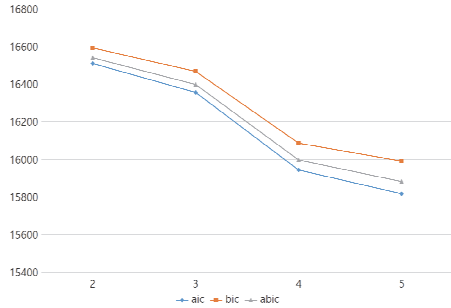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양상(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 따라 유의한 하위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 시켜가며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증결과와 집단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하위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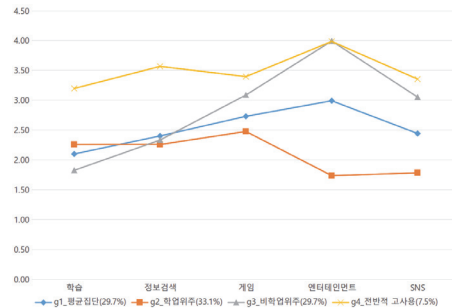
		잠재집단의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6512.564	16357.562	15945.881	15818.548
	BIC	16594.322	16469.980	16088.957	15992.284
	ABIC	16543.499	16400.099	16000.018	15884.286
분류의 질	Entropy	0.893	0.776	0.936	0.927
	VLMR	0.000	0.001	0.000	0.237
모형비교 검증*	LMR	0.000	0.001	0.000	0.243
	BLRT	0.000	0.000	0.000	0.000
집단비율(%)	1	0.528	0.263	0.297	0.111
	2	0.472	0.266	0.331	0.220
	3		0.471	0.297	0.285
	4			0.075	0.087
	5				0.297

* 모형비교 검증결과는 p 값을 제시하였음.

먼저, 정보지수는 잠재집단의 수가 세 개에서 네 개로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네 개에서 다섯 개로 증가할 때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둔화되었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분류의 질은 잠재집단 수가 네 개일 때 0.936으로 가장 높았다. 끝으로, 모형비교 검증결과 VLMR, LMR 검증 결과에서는 잠재집단 수가 네 개에서 다섯 개로 증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분류의 질이 높으며, 모형비교 검증결과에서도 유의한 집단분류로 나타난 하위잠재집단 수가 4개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정보적합도 지수



[그림 4] 최종 잠재집단의 구성

하위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그림 4]참조).

〈표 4〉 최종 잠재집단의 특성⁶⁾

집단명	G1 (평균)	G2 (학업위주)	G3 (비학업위주)	G4 (전반적 고사용)
집단비율 ⁷⁾	29.7%	33.1%	29.7%	7.5%
학습	2.11	2.26	1.84	3.21
정보검색	2.41	2.27	2.34	3.58
게임	2.74	2.48	3.09	3.41
엔터테인먼트	3.00	1.74	4.00	4.00
SNS	2.45	1.80	3.06	3.36

먼저, 첫 번째 집단은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각 영역의 미디어 사용이 전체의 평균적인 양상에 가장 가까운 집단(평균 집단)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였다.

6) 최종 잠재집단별 독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위주 집단의 하루 독서시간 평균이 0.77시간(약 46.2분)으로 가장 높았고, 비학업위주 집단은 0.52(약 31.2분)으로 가장 낮았다.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평균	F	사후분석
G1(평균)	0.62	15.858***	G2)G1=G4 ≥ G3
G2(학업위주)	0.77		
G3(비학업위주)	0.52		
G4(전반적고사용)	0.59		

7) 미디어 과의존집단과 일반집단에서의 잠재프로파일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1(평균)	G2(학업위주)	G3(비학업위주)	G4(전반적고사용)
과의존집단	27.0%	18.5%	27.0%	18.5%
일반집단	30.6%	25.4%	24.8%	25.4%

두 번째 집단은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SNS에의 미디어 사용비중이 다른 집단들 중에서 가장 낮지만, 학습목적 사용은 두번째로 높은 집단(학업위주 집단)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학습목적 사용은 가장 낮으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비학업위주 집단)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였다. 네번째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의 미디어 사용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고루 비중이 높은 집단(전반적 고사용 집단)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⁸⁾

2.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가. 초등학생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직접효과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양상에 따라 분류한 네 개의 하위잠재집단 중 평균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비학업위주 집단, 학업위주 집단, 전반적 고사용 집단의 학업적응 수준을 살펴본 모형의 전체적인 모형적합도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카이제곱검정은 결과는 기각되었으나 CFI와 TLI는 각각 .989, .978로 양호하였으며 RMSEA값도 .044(0.028-0.060)로 양호한 수치를 보여 전반적인 모형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접효과 분석결과, 미디어 사용 평균집단에 비해 학업에의 미디어 사용비중이 낮고, 이외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의 사용비중이 높았던 비학업위주 집단의 학교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모형적합도

$\chi^2 (df)$	CFI	TLI	RMSEA
36.074*** (11)	.989	.978	0.044 (0.028-0.060)

*** $p < .001$

<표 6> 직접효과 모수추정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회귀계수
학업위주 → 학교적응	0.046	0.028	0.060
비학업위주 → 학교적응	-0.059*	0.029	-0.075
전반적 고사용 → 학교적응	-0.007	0.046	-0.005

* $p < .05$

8) 미디어 하루평균 사용시간은 학업위주 집단은 평균 1.35시간, 평균 집단은 1.74시간, 비학업위주 집단은 2.28시간, 전반적 고사용 집단은 2.32시간 이었으며, 분산분석 결과 비학업위주 집단과 전반적 고사용 집단의 미디어 사용시간 차이를 제외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음.

나. 초등학생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양상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이 달라짐을 확인한 바, 이러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독서시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독서시간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카이제곱검증은 기각되었으나 CFI와 TLI는 각각 .986, .972로 양호하였으며, RMSEA값도 .043(0.030-0.058)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분석결과, 미디어 사용 평균 집단에 비해 학업위주의 사용 집단의 독서시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학업위주 집단의 독서시간은 유의하게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이 독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 사용 양상에 따라 독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미디어 사용시간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양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시간이 길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모형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46.123*** (14)	.986	.972	0.044 (0.030-0.058)

*** p < .001

〈표 8〉 매개효과 모수추정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회귀계수
학업위주 → 독서시간	0.142**	0.030	0.155
비학업위주 → 독서시간	-0.172**	0.031	-0.182
전반적 고사용 → 독서시간	-0.064	0.049	0.039
학업위주 → 학교적응	0.029	0.028	0.038
비학업위주 → 학교적응	-0.039	0.029	-0.050
전반적 고사용 → 학교적응	-0.001	0.045	0.000
독서시간 → 학교적응	0.117***	0.027	0.141

** p < .01, *** p < .001

끝으로, 미디어 사용양상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평균 집단에 비해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미디어 사용양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사라졌으므로, 독서시간이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매개효과 모수추정치: 부트스트랩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업위주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17**	0.006
비학업위주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20**	0.006
전반적 고사용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07	0.005

** α .01

다. 초등학생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다집단분석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양상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한 바, 이러한 효과가 미디어 과의존집단과 일반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디어 과의존군과 일반군에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등성을 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모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된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에서는 카이제곱검증결과는 유의하였으나, TLI값은 0.963, RMSEA는 0.035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요인부하량 동일성을 부여하였을 때 TLI값은 0.968, RMSEA는 0.032로 적합도 수치가 더 양호해졌으며 카이제곱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 절편 동일성까지 설정해준 모형에서 TLI값은 0.981, RMSEA는 0.032로 적합도 수치가 더 양호해졌으며 카이제곱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계수 동일성 모형의 경우 TLI값은 0.966, RMSEA는 0.039로 적합도 수치가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에 비해 좋지 않았고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에서도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측정절편동일성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10〉 연구모형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χ^2	df	TLI	RMSEA	$\Delta\chi^2$	Δdf
요인 구조 동일성모형	69.090***	28	0.963	0.035		
요인 부하량 동일성모형	69.699***	31	0.968	0.032	0.609	3
측정 절편 동일성모형	78.106***	35	0.981	0.032	8.407	4
구조 계수 동일성모형	116.479***	42	0.966	0.039	38.373***	7
구조 절편 동일성모형	136.369***	43	0.958	0.043	19.890***	1
구조 평균 동일성모형	167.714***	46	0.945	0.047	31.346***	3

	χ^2	df	TLI	RMSEA	$\Delta\chi^2$	Δdf
구조 공분산 동일성모형	209.315***	52	0.929	0.050	41.601***	6
구조 잔차 동일성모형	220.381***	54	0.922	0.051	11.065**	2
측정 잔차 동일성모형	223.175***	58	0.928	0.049	2.794	4

** $p < .01$, *** $p < .001$

최종모형 분석결과, 일반군은 평균 집단보다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집단에 속할 경우 유의하게 높은 독서시간을,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집단에 속할 경우 유의하게 낮은 독서시간을 보였다. 또한, 독서시간이 길 때 학교적응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과의존군은 평균 집단보다 비학업위주 집단에 속할 경우 독서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는 일반집단과 같이 유의하였으나, 학업위주의 집단에 속하여도 독서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과는 없었다.

〈표 11〉 직접효과 모수추정치 (다집단)

	일반		과의존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학업위주 → 독서시간	0.176***	0.190	0.068	-0.001
비학업위주 → 독서시간	-0.123**	-0.119	-0.205***	-0.125
전반적 고사용 → 독서시간	-0.116	0.060	-0.014	-0.010
학업위주 → 학교적응	0.099	0.134	-0.084*	-0.100
비학업위주 → 학교적응	0.027	0.033	-0.100**	-0.154
전반적 고사용 → 학교적응	0.055	0.036	-0.051	-0.045
독서시간 → 학교적응	0.100**	0.125	0.098**	0.107

* $p < .05$, ** $p < .01$, *** $p < .001$

붓스트랩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일반군은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 및 전반적 고사용 집단은 평균 집단에 비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적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과의존군의 경우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적의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군에서는 독서시간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과의존 집단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표 12〉 매개효과 모수추정치: 부트스트랩 (다집단)

	일반	과의존
학업위주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18**	0.007
비학업위주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12**	-0.020**
전반적 고사용 → 독서시간 → 학교적응	-0.012*	-0.0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생활의 비중이 가정에서 학교로 점차 이동하며 학교적응의 문제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정민·강수정·이강이 외, 2015).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또래 및 학교 환경만큼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대두된 미디어 환경의 효과를 미디어 사용양상 측면에서 세분화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과정 변인으로서 독서시간의 매개효과와 미디어과의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 따른 하위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한 결과 네 개의 집단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영역의 미디어 사용이 전체의 평균적인 양상에 가장 가까운 “평균 집단(29.7%)”과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SNS에의 미디어 사용비중이 다른 집단들 중에서 가장 낮지만, 학습에의 사용은 두번째로 높은 “학업위주 집단(33.1%)”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에의 사용은 가장 낮으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학업위주 집단(29.7%)”, 모든 영역에서의 미디어 사용이 고루 비중이 높은 “전반적 고사용 집단(7.5%)”이 존재하였다.

아동들의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초기 연구들은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디지털미디어 과몰입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미디어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환경을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김대웅·박윤현·박지은 외, 2019; 박윤현·박지은·서지연 외, 2020; 성은모, 2017).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미디어활용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2.96) > 게임(2.82) > SNS(2.49) > 정보검색(2.45) > 학습(2.1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미디어활

용양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디어활용의 긍/부정적인 효과의 차이가 미디어활용양상에 의한 차이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유형은 독서량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독서량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서량은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이 독서량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적효과와 학업위주의 미디어사용이 독서량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정적효과가 유의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시간의 증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다(박용한, 2014; 안수빈, 강보람, 이강이, 2017; 이귀옥, 2020; 이소은, 김미나, 2021).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강도의 효과에서 나아가 미디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활용을 사용시간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용동기와 목적의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과 학업위주의 미디어 사용은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디어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독서량이 완전매개함을 검증하였다. 이에, 학교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뉴미디어환경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및 미디어 사용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양상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미디어 과의존집단과 일반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집단구조 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의 동일성검증을 수행한 결과 측정절편동일성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과의존 집단과 일반(비과의존)집단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 과의존 집단에서는 비학업위주 집단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만이 유의하였고, 학업위주집단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졌다. 반면, 일반집단은 학업위주 집단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학업위주 집단 및 전반적 고사용 집단이 독서시간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과의존은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미디어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게임, 엔터테인먼트

먼트, SNS 등의 비학업적 미디어사용은 미디어 과의존 가능성을 높이고, 학업, 정보검색 등 학업적 미디어 사용은 미디어 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곽민지·김수민·권가진, 2019; 손동욱·임선아, 2020). 이 연구에서 미디어 과의존 여부에 따라 미디어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미디어 과의존은 학업적 미디어사용이 학교적응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켰다. 이는 미디어 과의존이 미디어사용양상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양상 분류를 위해 사용한 변수는 각 미디어 항목을 전혀 사용 안 함부터 매일 사용함의 4점 리커르트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미디어 유형별 정확한 사용시간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후속연구에서 미디어 사용유형별 시간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양상과 독서시간,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양상 하위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개인, 가정, 학교수준변인들에 대한 분석, 미디어 사용양상과 독서시간의 상호 영향력을 살펴보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등을 추가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른학교급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뉴미디어환경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적응에 기여 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87.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초등학생의 비율은 22.2%에 달한다(배상률·이창호·이정립, 2020). 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 활용양상은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며 미디어 활용양상에 따른 학교 적응 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미디어 활용은 정보 교류와 학습증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여가활동이나 포래관계 강화에 선용될 수도 있는 반면, 게임중독과 폭력물, 음란물 등 초등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전세경·김유정, 2016). 이에, 초등

학생 시기부터 미디어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력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한 상황과 미디어사용이 저연령화되어 가는 실태를 고려할 때,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미디어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독서시간이 완전매개함을 검증하였다. 그동안 미디어사용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본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독서시간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의 본질이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 있다고 본다면 새로운 미디어환경은 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동환, 2017). 양방향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 환경 안에서 독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독자들 및 작가와 의견과 느낌을 교환하는 소셜 읽기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독자는 텍스트의 수용자로서의 역할에서 생산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환, 2020; 이삼형, 2019). 김정량, 마태성과 노정현(2006)의 연구에 따르면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 제공으로 독서능력 향상과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독서교육은 미디어과의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며 학교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매체와 환경이 가진 장점을 흡수한 적극적인 상호소통과 생산자로서의 읽기, 학생의 수준에 맞춘 독서교육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에 기반한 양방향의 독서활동은 상호작용을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독의 위험성이 낮아 대안활동으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디어 과의존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이다솔·김광민·문상호 외, 2019)에서는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의존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나타난 바, 학생들의 자아의 성찰과 이해,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독서교육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 곽민지·김수민·권가진(2019). 청소년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인터넷 콘텐츠 유형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06-1108.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5. 9. 23.
- 김경민·송지은·최정원(202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 별 언어 및 집행기능 발달. **육아정책연구**, 15(1), 81-101.
- 김대웅·박윤현·박지은·서지연(2019). 그림유치원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9-162.
- 김동일·이윤희·이주영·김명찬·금창민·남지은·강은비·정여주(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증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동환(2017). 뉴미디어는 독서를 위협하는가?. **우리교육**. 통권 제267호.
- 김동환(202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문학 독서 교육. **문학교육학**, 66, 9-29.
- 김아란·남민지·최영은(2021). 초등 4-6 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실행기능과 독서 시간 및 선호도와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09-131.
- 김아미(2020). 초등학생 유튜브 경험 및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0(3), 341-358.
- 김재엽·장용연·민지아(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정량·마대성·노정현(2006).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준별 독서교육지원 시스템 개발 및 효과검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0(2), 191-200.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미디어증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 25-48.
- 김태용·박선주(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가 독서 실태 및 자기조절읽기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8(3), 433-442.
- 김혜정(2019). 미디어 시대의 책맹(비독서)현상과 독서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52, 9-49.
- 김환남·이선애·이은경·천재현·김성희(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증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복·황하성(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4), 289-311.
- 박승희·이형초·이정운(2007).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7(2), 17-36.
- 박신영(2013).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동기와 이용 정도에 따른 플로우 경험. **방송통신연구**, 97-126.
- 박용한(2014). 중학생의 미디어이용, 정서행동문제,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역할. **교육심리연구**, 28(4), 691-710.
- 박용현(2012). 특성화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 **독서연구**, 27, 222-257.
- 박윤현·박지은·서지연·김대웅(2020). K 유치원 교사들의 눈으로 바라본 스마트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5(3), 379-400.
- 배상률·이창호·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2017).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 유형분류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유용성, 학습민첩성,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잠재계층분석(Laten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3), 631-655.
- 손동욱·임선아(2020). 초등학교 고학년의 유튜브 이용동기가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3(3), 79-100.
-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윤희·김명찬·남지은(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안수빈·강보람·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양은별·김태우·박은혜·이소연·정익중(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 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 유지희·한창근(2017). 아동의 비만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9, 59-86.
- 윤여진·정인경(2014).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19-232.
- 이귀옥(2020).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궤적과 학교적응 궤적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05-124.

- 이다솔·김광민·문상호·권기현(201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영향요인 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 241-270.
- 이삼형(2019).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독서교육. **독서연구**, 53, 9-32.
- 이상직·전영구·정우연·한신갑(2016).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적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감. **교육사회학연구**, 26, 121-154.
- 이선영·정명은·임혜정(2021). 초등학생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2011년과 2019년 시기별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71, 277-304.
- 이소은·김미나(2021).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가 미디어중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비평**, 47, 212-235.
- 이은미(2021).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독서 교육의 지향. **공존의 인간학**, 6, 151-182.
- 이정민·강수정·이강이·이순형(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4), 91-110.
- 전병규·오주리(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571-589.
- 전세경·김유정(2008).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 265-285.
- 정선영(2022). 출생시기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한국복지패널에 참여한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1), 155-177.
- 정진주·장혜인(2021).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양상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5-155.
- 정호선·조미아(202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5-26.
- 조윤영(201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적응, 청소년 비행 간 종단관계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145-172.
- 최민재(2013). 스마트폰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의 가정 TV 시청 대체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7(3), 172-205.
- 황중호·이향숙·유숙경·장성화(2017).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6(2), 407-42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
- Chonchaiya, W., & Pruksananonda, C. (2008). Television viewing associates with

-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Acta Paediatrica*, 97(7), 977-982.
- Couse, L. J., & Chen, D. W. (2010). A tablet computer for young children? Exploring its viabili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on technology in education*, 43(1), 75-96.
- Gwag, M. J., & Lee, H. S. (2009). The characteristics of trend and addictive inclination in mobile phone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Ecology*, 13(1), 183-205.
- Hyde, R., O'Callaghan, M. J., Bor, W., Williams, G. M., & Najman, J. M. (2012). Long-term outcomes of infant behavioral dysregulation. *Pediatrics*, 130(5), e1243-e1251.
- Jordan, A. (2004). The role of media in children's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5(3), 196-206.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t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1(3), 723-738.
- Muthen, B.(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Kaplan D.(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pp.345-368.
- Woolley, M. E., & Grogan-Kaylor, A. (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1), 93-104.

- 논문접수: 4월 4일 / 수정본 접수 5월 22일 / 게재 승인 9월 20일
- 교신저자: 하여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yeojinha@ewha.ac.kr

Abstract

Effect of media usage patterns on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ading tim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edia overdependence

Yejin H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 usage patterns and to verify differences in school adaptation among the latent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reading tim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edia overdependence were also tested.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pplied to data obtained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edia usage patter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 latent subgroups were identified. Second, the school adaptation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nfluenced by their media usage patterns. The mediating effect of reading ti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age patterns and school adapt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multi-group analysis identified differences between the media overdependence group and the general group in the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Based on the results, media-usage education and read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 media usage, reading time, school adaptation, latent profile analysis.